

‘녹슬지 않는 탱크’ 최경주, 최고령 우승 신화 다시 쓰나

내일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개막 KPGA 5개월 만에 기록 경신 나서 함정우·박상현·장유빈 등 출전

최경주(사진)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 경신에 또 한 번 도전한다. 최경주는 3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파72)에서 열리는 KPGA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2억5000만원)에 출전한다.

최경주는 만 54세 생일이던 지난 5월 19일 SK텔레콤 오픈 정상에 올라 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새로 썼다.

최상호가 갖고 있던 종전 기록 50세 4개월 25일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에 최경주가 또 우승한다면 불과 다섯 달 만에 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

SK텔레콤 오픈 때 최경주의 우승을 예상한 사람

은 없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최경주를 우승 후보에서 빼놓을 수 없다.

최경주는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한 뒤 2개월 만에 영국 스코틀랜드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에서 디 시니어 오픈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어 한국인 최초의 시니어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장기간 아이언샷은 더 날카로워졌고, 쇼트게임과 퍼트가 더 정교해진 덕분에이다.

최경주는 이 대회에 대비해 지난달 25일 귀국해 시차 적응도 모두 마쳤고 충분한 휴식과 연습을 통해 경기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함정우다.

함정우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이 페럼 클럽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작년까지 4차례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다.

지난해 두 번째 정상에 올랐던 함정우는 이번이 타이틀 방어전이다. 2연패와 함께 이 대회 통산 3승을 노린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두 번 우승한 선수는 2011년, 2012년 2년 연속 우승한 최경주 말고는 함정우밖에 없다. 세 번 우승한 선수는 아직

없다.

최경주와 함정우는 대회 세 번째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함정우는 더구나 지난달 15일 골프존-도레이 오픈 정상에 올랐던 터라 2개 대회 연속 우승도 바라보고 있다.

지난 5월 SK텔레콤 오픈에서 최경주에 연장전 패배를 당했던 박상현은 설욕을 노린다.

상금랭킹 1위 김민규는 시즌 3번째 우승과 KPGA 투어 사상 첫 시즌 상금 10억원 돌파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 장유빈과 전기갑, 고군택, 김홍택, 허인회, 이승택 등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갖췄다.

대회가 열리는 페럼 클럽은 대회 호스트인 최경주가 직접 코스 세팅에 나서면서 단단하고 빠른 그린과 깊고 질긴 러프, 좁은 페어웨이 등 PGA 투어 개최 코스와 다를 바 없는 변별력을 갖췄다.

또 최경주는 프로암을 개최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이를 동안 연습 라운드를 보장하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후배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연합뉴스



마지막 ‘메이저 퀸’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3일 개막

윤이나·이예원·박지영 등 출격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최강자가 이번 주에는 가려질 수 있을까? 2024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3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론 골프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는 총상금이 지난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수상 상금은 2억16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메이저 대회인 만큼 대상 포인트도 일반 대회보다 많아 우승자에게는 100점이 주어진다.

이번 시즌에는 3승을 거둔 선수가 4명이나 되고, 이들을 위협하는 선수들이 대회마다 나타나고 있어 많은 상금과 대상 포인트가 부여된 이번 대회에서 최강자가 가려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작년 대회 우승자 이예원이다.

이예원은 작년 대회에서 강자들을 물리치고 정상에 올라 대상 수상과 상금왕의 발판을 놓았다.

이번 시즌 3승을 올리며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달리는 이예원이지만 상금 순위와 대상 포인트에서는 각각 4위로 밀렸다.

이예원이 이번 주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면 다승 1위는 물론 상금과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도 단숨에 선두를 꿰찰 수 있다.

이예원은 “작년에 우승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타이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며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데 남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즌 3승과 함께 상금과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 1위를 달리는 박지영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박지영은 8월부터 9월까지 8개 대회에 출전, 6



차례나 톱10에 진입했다. 이 중에는 메이저 대회 한화클래식 우승도 포함됐다.

박현경과 배소현도 시즌 네 번째 우승을 버리고 있는 데다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제패한 무서운 신인 유현조까지 우승 경쟁에 불을 붙였다.

또한 이번 시즌 4개 메이저 대회에서 세 차례나 톱10에 이름을 올린 윤이나도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정조준한다.

윤이나는 한화클래식에서만 공동 19위로 밀렸지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3위, 한국여자오픈에서 공동 7위, KLPGA 챔피언십에서 9위를 차지했다.

하이트진로의 후원을 받는 윤이나는 “후원사 대회인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어려운 코스인 만큼 욕심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 샷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대회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장애인 양궁 선수단이 지난달 26~28일 제3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 출전해 활약을 했다. 남자 컴파운드 개인 토너먼트에서 1위를 차지한 윤태성(광주시청)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 제공)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단, 전국대회 ‘금빛 시위’

순천만배서 윤태성·김옥금·정진영 등 금메달

광주-전남 장애인 양궁 선수단이 ‘제3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 출전해 다수 입상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시·도 선수단 100명을 포함해 총 200명이 참가해, 2025년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4차 선발전전을 겸해 치러졌다.

윤태성(이하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남자 컴파운드 50m 1라운드 1위(338점), 50m 종합(1·2라운드 합계) 1위(674점), 개인 토너먼트 1위를 차지하며 총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김홍필과 출전한 남자 컴파운드 더블에서 2위(136점), 정진영과 출전한 혼성 컴파운드에서 2위(1319점)를 기록했다.

여자 W1 김옥금은 50m 1라운드 1위(312점), 50m 종합 1위(615점)를 달성했고 개인 토너먼트에서는 2위에 올랐다.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김옥금은 지난 9월 폐막한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했지만 여자 W1 동메달 결정전에서 테레사 브랜트르바(체코)에 122-127로 패하며 단식 4위에 그쳤다. 함께 출전한 정진영 역시 여자 컴파운드 32강전에서 메달 도전을 마무리했다.

여자 컴파운드 정진영은 50m 1라운드에서 331점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2라운드에서 314점을 쏘면서 종합 4위에 그쳤다.

이화숙은 여자 리커브 70m 1라운드 2위(278점), 70m 종합 1위(567점)에 올랐고 개인 토너먼트에서 3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화숙은 김용욱과 혼성 리커브에서도 동메달을 합작했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토너먼트와 혼성경기 메달에 한해 집계된 순위에서 시·도 종합 2위(금1·은2·동1)를 달성했다.

안형승 광주시청 감독은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은 다가올 장애인 전국체전을 대비해 열심히 훈련 중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기쁘고 감사하다”며 “특히 윤태성이 이번 대회를 포함한 1~4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해온 훈련들로 기량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2025 광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를 목표로 꾸준히 국제대회에 출전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 소속 선수단의 활약도 이어졌다.

여자 리커브 장경숙(한전KDN)은 개인 토너먼트 준결승에서 광주의 이화숙을 누르고 결승에 올랐지만 관하연(부산시청)에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남자 W1 고일석(이하 전남양궁협회)은 50m 1라운드 2위(297점), 50m 종합 2위(569점), 개인 토너먼트 2위에 올랐다.

여자 컴파운드 최미영(전남양궁협회)은 개인 토너먼트 동메달을 따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목포과학대·전남파크골프협회, 파크골프 포럼 개최

4일 목포서 발전 방안 등 논의

전남 목포에서 파크골프의 활성화와 미래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파크골프 포럼’이 열린다.

목포과학대학교와 전남도파크골프협회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목포 상그리아호텔 연회장에서 진행된다.

‘파크골프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포럼은 파크골프 종목의 질적 향상과 전문기 양성 및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는 전남도파크골프협회 박경래 회장의 포럼 목적 및 기대효과 소개로 시작되며, 목포대학

교 박성수 교수의 ‘파크골프의 현재와 미래’ 기조연설, 정구영 교수(한국골프학회 부회장)와 이승재 교수(한국골프학회 상임이사)의 ‘파크골프의 전문화 전략’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 권혁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의 ‘파크골프 대회 운영 및 융합인증 표준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주제발표, 서경대 김재환 교수의 ‘파크골프의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준비’ 주제발표 등이 이어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es)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